

다니엘서 - 79번

1888년의 반역을 밝히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 제2세대로부터의 교훈

Jeff Pippenger

2024-02-12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두 번째 세대는 1888년에 등장했으며, 그 세대는 에스겔 8장에서 두 번째 가증한 일로 상징되는데, 곧 '그의 상상의 방들'로 표현된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니, 보라, 온갖 모양의 기는 것들과 가증한 짐승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이 사방 벽에 그려져 있었다.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칠십 인이 서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는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가 서 있었으며, 각 사람은 손에 자기 향로를 들고 있었고 짙은 향의 연기가 올라갔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 사람이 자기 우상의 골방에서 어둠 속에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와는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에스겔 8:10-12.

상상의 골방들은 고대의 남자들로 묘사된 자들의 마음속에 감춰진 사악한 비밀을 나타내며, 그들은 그 사악함을 자기들의 마음의 골방들에만 들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안의 골방들에도 들여왔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떡을 먹지 말며 그의 진미를 탐하지 말라.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가 그러한 자니,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말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니라. 잠언 23:6, 7.

형상의 방들의 사악함은 성전의 벽에도, 고대인들의 마음의 벽에도 기록되어 있다. 에스겔 8장의 둘째 가증함의 은밀한 형상의 방들은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제2세대를 상징하며, 네 가지 가증함 가운데 둘째 가증함은 집단적 반역을 강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만, 네 가지 가증함 모두는 백성의 수호자였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진 것으로 묘사된다.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들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들 위에 구원의 표가 찍혔다. 이제 죽음의 천사가 나아가는데,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살육하는 무기를 든 사람들로 나타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이 주어졌다.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모조리 죽이라. 그러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하지 말라. 그리고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선지자는 말한다.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였다." 에스겔 9:1-6. 파괴의 일은 백성의 영적 수호자라 자처해 온 자들 가운데서 시작된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쓰러진다. 불쌍히 여기거나 남겨 두는 이가 없다. 남자와 여자, 처녀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멸망한다. 위대한 논쟁, 656쪽.

둘째 세대의 도래를 특징짓는 반역은, 1888년 미니애폴리스 대총회에서 성취된 바와 같이, 라오디게아적 재림교회의 지도부와 특별히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집의 장로들"이라는 표현과 또한 "일흔 명"으로 상징된다. 모세의 사역과 함께한 이들은 일흔 명의 장로들이었고, 예수님의 두 번째 제자 무리도 일흔 명으로 이루어졌다. "일흔"은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지도부를 상징한다. 두 번째 가증한 일은 지도부에 특별한 강조를 두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증한 일이 지도부의 집단적 반역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일흔 명의 연로한 남자들 한가운데에 "Shaphan의 아들 Jaazaniah"가 서 있었다. 이름 "Jaazaniah"는 "하나님이 들으심"을 뜻하며,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던 바로 그때 반역한 지도부를 대표한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듣기를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고 은밀한 방들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지 않으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Jaazaniah는 "Shaphan의 아들"이었고, 이름 "Shaphan"은 "숨기다"를 뜻한다. 둘째 세대의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 반역한 지도부의 반역을 나타내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행위를 보지도 관심을 두지도 않으신다고 믿었다.

화이트 자매는 1888년 대총회 기간 동안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 지도부의 대화가 자신에게 보여졌다고 기록했다. 1888년 대총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지도자들이 서로만의 자리에서 가진 모임들을 화이트 자매에게 보여 주셨다. 그들은 방 안의 은밀함 속에서 화이트 자매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존스 장로와 왜그너 장로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 그들은 사적인 거처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지 못하신다고 믿어 마음껏 말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대화들을 그 여선지자에게 보여 주셨다. 그들은 전체 회의 중이었고, 영감에 따르면 늦은 비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지만, 듣기를 거부했다.

화이트 자매가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에 비유할 정도로 1888년에 그토록 공공연한 반역을 드러낸 지도부를 낳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당신이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미니애폴리스에서의 그 모든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다시는 당신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아무 까닭 없이 내게 안겨 준 슬픔과 고통과 영혼의 짐을 내가 용서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을 위해,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나는 당신이 자신의 잘못을 보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과 연합했습니다. 주님께서 존스와 왜그너 두 형제를 통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확증하기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당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방종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말을 한 뒤에도, 당신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 메시지와 그 전달자들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백성들 가운데 미니애폴리스에서 나타난 것만큼 완강한 자기만족과 빛을 수용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나는, 그 모임에서 나타난 그 정신을 품었던 무리 중 단 한 사람도, 그들의 교만을 낮추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고백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보내진 진리의 귀함을 분별할 분명한 빛을 다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 주심을 받았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배도를 고쳐 주시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와 같은 정신에 의해 움직였다.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모든 증거를

거부하기로 결심하였고,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끌려 그들과 연합할 때까지 그들의 불만과 이탈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이들은 누구였는가? 약한 자도 아니었고, 무지한 자도 아니었으며, 깨우침을 받지 못한 자들도 아니었다. 그 반역에는 회중 가운데 이름난 지도자들, 곧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이백오십 명이 있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가?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회중 위에 너희 자신을 높이느냐?' [민수기 16:3]. 고라와 그의 동조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을 때, 그들이 속였던 백성은 이 기적에서 여호와와 손을 보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을 죽였도다' [41절] 하고 비난하였고, 역병이 회중에게 임하여 만사천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

"내가 미니애펠리스를 떠나려 마음먹었을 때, 주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을 맡기셨다. 백성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되풀이하고 있다. 내가 너를 네게 합당한 자리,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은 인정하지 않을 그 자리에 세웠다. 그들은 네 증언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나의 은혜와 능력이 너를 붙들 것이다. 그들이 멸시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내가 내 백성에게 보내는 사자들과 그 메시지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사탄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판단을 왜곡하였다. 만일 각 영혼이 이 죄, 곧 하나님의 영을 모욕하는 이 거룩하지 않은 독립심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어둠 속을 걸으리라.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치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시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는 그들이 내 말씀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영을 가졌기 때문이다. 가벼움과 경박함, 희롱과 농담이 날마다 행해지고 있다. 그들은 마음을 정하여 나를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피워 올린 불꽃 속을 걸으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슬픔 속에 눕게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네 의무의 자리에서 굳게 서라.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감히 무시하지 못했다."

배틀크리크에는 맑고 밝은 광선으로 빛이 비쳐 왔다. 그러나 미니애펠리스의 집회에서 한몫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빛으로 나아와 주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보내신 진리의 풍성한 보화를 받아들였는가? 누가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조를 맞추어 걸어왔는가? 누가 자기들의 잘못된 열심과 눈먼 상태, 시기와 약한 의심, 진리에 대한 거역을 온전히 자백했는가?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빛을 인정하기를 등한히 한 탓에, 그 빛은 그들을 멀리 뒤에 남겨두었다.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을 수도 있었고, 받았더라면 신앙 경험에서 굳건한 사람들이 되게 했을 그 필요한 은혜를 받지 못했다.

미니애펠리스에서 취한 입장은 걸보기에 그들을 의심하는 자들,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자들과 한데 가두어 버린, 거의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다. 또 다른 위기가 닥칠 때, 그토록 오랫동안 쌓이고 또 쌓인 증거를 거슬러 온 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도 분명히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 시험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받아들이고 어둠의 권세에서 온 것은 거절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길은 겸손히 행하여, 절뚝거리는 자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발을 위한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느냐, 아니면 자신들의 자칭 지혜를 따르며 자기들이 피워낸 불티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느냐.

진리에 맞서 일해 온 이들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 쏟아부어야 했던 시간과 정성과 수고는 참으로 막대한 손실이었다. 우리는 영적 지식에서 수년은 더 앞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며, 빛 가운데 걸어야 했던 이들이 주를 더 알아 가려고 계속 따라가 그분의 나아오심이 새벽처럼 예비되어 있음을 알았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보내시는 진리에 맞서 화강암 벽처럼 버티고 서 온 일꾼들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바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쏟아야 할 때, 세상은 상대적 어둠 속에 남겨진다.

하나님께서서는 파수꾼들이 일어나 연합된 목소리로 단호한 기별을 내보내어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게 하고, 모든 백성이 각자의 의무의 자리로 분연히 나아가 그 큰 사업에서 제 역할을 하게 되기를 뜻하셨다. 그리하였다면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천사의 강하고 분명한 빛이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가득 채웠을 것이다. 우리는 수년이나 뒤쳐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니애폴리스 집회에서 타오르는 등불처럼 나아가게 하시려 했던 바로 그 기별의 전진을 눈먼 가운데 서서 가로막았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그들의 시각의 눈멀음과 마음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어떻게 방해를 받아 왔는지를 보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 Manuscript Releases, 제14권, 107-111쪽.

1888년에 그렇게 노골적인 반역을 드러낸 지도부를 화이트 자매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비유했는데, 그런 지도부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답은 의심할 여지 없이 1863년의 반역에 있는데, 그 반역이 에스겔에게 전해진 '더 큰 가증한 일들'을 위한 길을 예비했기 때문이다.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거부하고 위조된 도표를 들여오면, 1863년의 위조를 유지하고 옹호해야 하는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해서 밀리는 자신의 보석들이 흩어지고, 잡동사니와 가짜 보석과 동전들로 덮여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세상말에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한다.

실제로는 승리자가 아님에도 라오디게아적 재림교회를 이끄는 이들은 네 세대를 거치며 점점 커져 온 반역을 옹호하는 역사 서사를 구축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그 반역을 하늘의 천사들이 기록한 실제 역사와는 동떨어진 시각으로 보이게 하려 했다. 역사의 수정은 가톨릭 교회 예수회의 전형적 특징이며, 역사 수정주의는 라오디게아적 재림교회 역사학자들의 전매특허였다. 요즘 라오디게아적 재림교회 '역사학자'들이 미니애폴리스 총회 회기에 관해 쓴 것은 역사 수정주의의 전형적 사례다.

그 회의에서 반역했던 사람들 가운데 결국 회개한 이들도 몇 명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외가 규칙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이 되풀이되고 있었으므로, 화이트 자매는 그 자리에 남아 회의를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재림교 역사학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메시지가 이해되었는지 이해되지 않았는지, 거절되었는지 거절되지 않았는지, 혹은 그 후에 받아들여졌는지를 중심으로 증언을 구성하는 것은, 고라, 다단, 아비람으로 전형화된 반역에 관한 영감으로 주어진 증언을 회피하는 일이다.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그 세 반역자 중 누가 나중에 회개하여 모세와 함께 지도부에 다시 받아들여졌는가?

고라, 이 운동의 주동자는 레위인으로 고핫 가문 출신이며 모세의 사촌이었다. 그는 능력과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성막 봉사에 임명되었음에도 그는 자기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직의 위엄을 탐냈다. 원래 각 가정의 장자에게 맡겨지던 제사장 직분이 아론과 그의 집에 수여되자 질투와 불만이 생겨났고, 한동안 고라는 공공연한 반역 행동을 감행하지는 않으면서도 은밀히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맞섰다. 마침내 그는 민정과 종교적 권위를 모두 전복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꾸몄다. 그에게 동조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성막 남쪽, 고라와 고핫 자손들의 장막 가까이에는 르우벤 지파의 진영이 있었고, 이 지파의 두 족장인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이 고라의 장막 근처에 있었다. 이 족장들은 그의 야심찬 계획에 선뜻 가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야곱의 장자의 후손이므로 통치권이 자신들에게 속한다고 주장했고, 제사장직의 영예를 고라와 나누기로 작정하였다.

백성들의 정서는 고라의 계획을 뒷받침했다. 실망의 쓰라림 속에서 그들의 예전의 의심과 질투와 미움이 되살아났고, 그들의 불평은 다시금 인내심 많은 지도자를 향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잊어갔다. 그들은 언약의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지도자였고, 구름 기둥에 가려진 채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들 앞서 갔으며, 모세가 그분에게서 모든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잊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는 끔찍한 선고에 복종하려 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파멸을 선고한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믿기 위해서라면 어떤 구실이든 붙잡으려 했다.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의 최선의 노력도 이 백성의 불복종을 잠재우지 못했다. 그들의 무너진 대열과 줄어든 인원 속에, 이전의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의 흔적이 여전히 눈앞에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유혹에 굴복했다.” Patriarchs and Prophets, 395, 396.

라오디게아 재림주의는 1856년에 시작되었고, 1863년에는 법적으로 등록된 라오디게아 재림교회가 되었다. 앞선 글들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라오디게아가 구원을 받는다는 영감의 증언은 없다. 라오디게아는 자신의 상태를 회개하고 빌라델비아가 상징하는 경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다. 라오디게아는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리심을 당함으로써 심판을 받는 백성이다. 영감의 증언은 라오디게아 교회로서 그 교회가 옛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정해져 있었음을 밝힌다.

고대 이스라엘의 반역자들 가운데 누가 광야에서 사십 년을 방황한 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그들의 방황은 현대 이스라엘의 방황을 예표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1888년의 반역을 예표한)은, 백성에게 내려진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방황하라’는 판결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데에 근거했다. 1888년의 반역은, 지도부가 자신들을 라오디게아로 규정하고 그들의 불복종 때문에 광야에서 훨씬 더 많은 세월을 방황하도록 정하는 선언을 거부한 데에 근거했다.

"A. T. 존스와 E. J. 왜거너가 우리에게 전해 준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이며,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888 자료, 1053.

1888년에 사람들의 수호자가 되어야 했던 옛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자이고 재산이 늘어났다'고 믿었다. 우리는 1888년에 앞서 이러한 상태를 무엇이 초래했는지를 다음 글에서 살펴보겠다.

빛과 진리를 알고 있었던 이들 중 일부가 얼마나 빨리 사탄의 기만을 받아들이고 거짓된 성결에 현혹되는지를 보며, 내 영혼은 심히 슬퍼진다. 예언에 의해 규정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도록 주께서 세워 놓으신 이정표에서 사람들이 돌아설 때,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나아가고 있다.

나는 진정한 반역이 과연 치유될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죽장과 선지자"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살펴보라. 이 반역은 확산되어 두 사람을 훨씬 넘어섰다. 회중의 명망 있는 지도자들 250명이 이를 주도하였다. 반역은 반역, 배도는 배도라고 오히려 부르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옛 백성이 겪은, 거슬리는 모든 요소까지 포함한 그 경험이 역사에 남도록 충실히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성경은 이렇게 선언한다. "이 일들은 ... 세상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리고 진리를 아는 남녀가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진 나머지 배도의 우두머리를 들어 그를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들이 진리의 광산 속으로 깊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귀한 광석과 하찮은 잡석을 구별하지 못한다.

자신들의 이단을 가지고 들어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거짓 선지자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풍성히 주어진 경고들을 읽으라. 이러한 경고들이 있음에도 왜 교회는 거짓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는가? 이와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미혹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너무도 쉽게 미혹되었으므로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그들은 참 목자의 음성과 낯선 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다. 그런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다시 살펴보라.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의 증언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오셨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이 지난 뒤에, 믿는 자들의 온 교회를 속임에서 풀어 주겠다고 몇몇 남자와 그들의 아내들이 화이트 여사를 사기꾼이요 기만자라고 선언하는 일이 남겨졌단 말인가?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증거를 무시하고 그 복을 저주로 바꾸는 자들은 자기 영혼의 안위를 두려워 떨어져야 한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촛대는 그 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주께서 모욕을 당하셨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진리의 표준이 먼지 속에 끌리도록 내버려졌다. 파수꾼들이 이런 식으로 백성을 미혹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 떼에게 어떤 양식이 주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릴 예리한 분별력이 없었던 것에 대하여 몇몇 영혼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배교가 일어나 왔고, 주님께서 과거에도 이러한 성격의 일들이 전개되도록 허용하셔서, 그분의 백성이 고상한 베리야 사람들처럼 스스로 성경을 살펴 이러한 일들이 그러한지 확인하기보다 사람의 말에 의존할 때 얼마나 쉽게 미혹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러한 종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발생하도록 허용하셨다.

반역과 배교가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만연해 있다. 믿음으로 우리의 무력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도 쉽게 미혹된다면, 사탄이 그리스도를 사칭하여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은 어떻게 서겠는가? 그때,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하고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며,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은 무엇인가?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교리는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진리를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단단히 닳을 내려야 한다. 그러면 그들의 배는 폭풍과 광풍을 견딜 것이다. 이는 닳이 그들을 굳게 붙들어 주기 때문이다. 속임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우리는 반역을 반역이라 불려야 한다. 우리는 온전한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어야 한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들에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주의 깊고 엄숙하게 읽도록 하라. 노트북 소책자, 57, 58.